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지문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독해력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실제 시험을 치를 때는 시간 관리 능력 또한 그에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시험장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매우 많아 평소에 쌓아온 실력을 온전히 다 발휘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하루에 여러 과목의 시험을 보는 수능의 경우 사소한 판단 착오나 행동 하나가 시험 전체의 흐름을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독해력을 기르기 위해 글을 잘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정해진 시간 안에 안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관리법을 익히는 것 또한 고득점을 받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구체적인 시간 관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 문제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과감히 넘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문제를 풀다 보면 두 개의 선지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정답이 명확히 보이지 않아 당황할 때가 있다. 이때 정답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시간을 계속 쓰다 보면, 정작 뒤에 있는 쉬운 문제들을 구경조차 못 하고 틀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따라서 고민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면 일단 표시를 해두고 넘어간 뒤, 다시 돌아와서 차분히 푸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둘째, 지문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는 문단의 핵심 내용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다. 글을 읽다가 막히는 구간이 나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부분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게 된다. 하지만 한 곳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전체적인 풀이 시간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이럴 때는 세부적인 문장에 집착하기보다, 그 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만 빠르게 짚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유연함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실전에서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단순한 이해를 넘어, 버리는 용기를 몸에 익히는 체화 과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평소 기출문제를 풀거나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의도적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지점에서 별표를 치고 넘어가거나 문단의 핵심만 잡고 풀며 속도를 높이는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이러한 결단력이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만, 실제 수능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문이 이해되지 않을 때는 일단 표시하고 넘어가야 한다.
- ② 쉬운 문제를 먼저 풀어 전체 풀이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 ③ 단순히 글을 잘 읽는 연습은 국어 실력을 키워주지 않는다.
- ④ 시간 관리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복하여 적용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 ⑤ 시간 관리 방법을 체화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문단의 핵심만 잡고 푸는 연습을 반복해야 한다.

2. <보기>는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항상 국어 시험만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2~3문제 씩 못 풀었는데 그게 시간 관리 능력 부족 때문이었는데. 윗글에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가)하면 시험을 더 잘 보겠지?

- ① 모르는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넘어가기만
- ② 시간 관리 방법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학습하기만
- ③ 독해력과 시간 관리 방법을 모두 기르기만
- ④ 지문을 이해하는 것에 너무 매몰되지 않기만
- ⑤ 의도적으로 시간 관리 능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기만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학생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학생 A: "나는 선지 두 개가 헛갈리면 지문의 근거를 완벽하게 찾아낼 때까지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않고 매달리는 편이야."

학생 B: "나는 시간 관리 방법론을 머리로 완벽히 이해했으므로, 실제 수능장에서도 이전과 달리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확신해."

학생 C: "나는 평소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 시간이 넉넉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모르는 부분을 핵심만 짚고 넘어가며 결단력을 기르는 연습을 하고 있어."

- ① 학생 A는 특정 문항에 과도한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정작 해결 가능한 뒤쪽의 문항을 해결할 기회를 상실할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
- ② 학생 B는 방법론의 이해와 실전에서의 발휘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③ 학생 C가 수행하는 의도적인 넘기기는 실제 수능장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체화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④ 학생 A와 학생 B는 모두 방법론의 체화 과정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⑤ 학생 B와 학생 C는 모두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필자의 주장을 이해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대 형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단순히 보호되어야 할 대상을 넘어, 재판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영향을 끼치는 권리 주체로 그 지위가 올라갔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권리 격상”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고대 사회에서 범죄는 씨족이나 개인 간의 사적인 분쟁으로 간주되었다. 당시에는 국가의 형벌권이 확립되기 전이었으므로, 사법의 최우선 목적은 범죄자에 대한 징벌보다 피해자의 손실을 메우는 보상과 ㉠실질적인 대처에 있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초기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사적 복수가 허용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점차 공동체를 파멸로 이끌어갔다. 그러자 국가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 측에 금전이나 가축 등으로 보상하여 유감을 표하는 배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을 평화롭게 ㉡종결짓고자 하였다.

중세 시절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범죄는 점차 개인 간의 법익 침해를 넘어 국가 질서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다. 국왕이 사회 전체의 안녕을 책임진다는 “왕의 평화”라는 개념이 확립되면서, 재판의 목적은 피해자의 구제보다 가해자의 엄벌을 통한 공권력의 위엄 확립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과거 피해자에게 지급되던 배상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벌금으로 대체되었으며, 피해자는 단지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이나 증거물이라는 도구적 역할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인권 의식의 성숙과 피해자학의 발전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크게 바꾸게 되었다. 범죄를 단순히 “법질서 위반”으로 보던 이전 시각과 달리 점차 범죄를 “피해자와 공동체에 대한 상처”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응보적 처벌만큼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사법적 주체성 회복을 중시하는 “회복적 사법”의 논의 역시 활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후에 이는 피해자가 형사 절차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발언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나)

세계 1·2차 대전을 거치며 전장에서 귀환한 군인들이 보인 비정상적인 심리 반응은 정신의학계에 거대한 화두를 던졌다. 초기에는 이를 단순한 물리적 충격이나 개인의 나약함으로 치부했으나,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참전 군인이 급증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본격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정립된 “압도적 공포에 의한 각인”과 “심리적 붕괴”라는 개념이자 PTSD의 주요 원인은 이를 이해하는 핵심 틀이 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성과는 이후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여성 인권 신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그동안 사적 영역에 머물러 있던 성범죄 피해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기점으로 피해자들이 마주하는 심리적 고통에 대한 연구 또한 질적·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다.

성범죄 사건 직후 피해자는 감내하기 어려운 극단적 공포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의식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해리 현상을 경험한다. 이 시기 피해자는 감정이 소거된 듯한 심리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며, 자신이 겪은 폭력을 마치 제삼자의 경험인 양 객관화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외상적 사건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해리를 통해 억압되었던 기억들이 과편화된 형태로 의식에 침투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재경험이라 한다. 재경험 단계에 진입한 피해자는 특정한 냄새, 온도, 소리 등 사건 당시의 감각이 느껴질 때마다 과거의 공포를 실시간으로 재구성하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는 뇌의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되어 일상의 사소한 자극조차 ㉣즉각적인 생존 위협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만성화된 과각성 상태는 불면, 집중력 저하, 병적인 경계심을 유발하며, 결국 피해자의 일상을 극심한 괴로움과 무력감 속에 함몰시킨다.

이후 트라우마가 만성화되면, 피해자는 외부 세계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위협적인 공간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을 오염되거나 파괴된 존재로 규정하는 인지적 왜곡을 겪게 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 비난’은 외상의 원인을 피해자 본인의 과오로 돌리게 함으로써 자아를 점진적으로 ㉤잠식한다. 결국 피해자는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수치심의 기원을 차단하기 위해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을 극단적으로 거부하게 되며, 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고립과 자아의 상실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만성적인 PTSD 상태가 이어지게 된다면 피해자의 시간 관념을 점차 왜곡된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끊임없이 침범하고 머릿 속에서 재구성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미래를 설계하거나 꿈꿀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삶의 연속성이 끊어진 채 사건 당시에 박제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4. (가)와 (나)의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대별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대조하고 있고, (나)는 군인들의 PTSD의 양상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가)는 가해자의 인식 변화 또한 역사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성폭력 피해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가)는 인권 의식의 성숙으로 인한 변화를 드러내고 있고, (나)는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유형별로 대조하고 있다.
- ④ (가)는 피해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두 학설을 비교하고 있고, (나)는 성폭력 피해자들 사이의 공통점을 비교하고 있다.
- ⑤ (가)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 인식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피해자에 대한 재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대 사회에서 배상금 제도는 사적 복수의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겠군.
- ② 고대 사회가 지나간 이후에도 응보적 처벌은 중요한 담론으로 활용되었겠군.
- ③ 중세 사회에서 재판은 국가와 가해자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겠군.
- ④ 중세 사회에서 재판은 공동체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진행되었겠군.
- 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사과와 보상을 받을 권리가 확립되었겠군.

6. (나)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성폭력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오히려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군.
- ②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사건 당시의 감각이 느껴질 때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해리 상태에 빠질 수 있겠군.
- ③ 만성적인 PTSD 상태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자기 비난을 행할 수 있겠군.
- ④ 트라우마가 직후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 자체의 기억을 외면하는 심리적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겠군.
- ⑤ 성범죄 피해자에게 있어서 “압도적 공포에 의한 각인”은 수치심의 기원으로서 작용하겠군.

7.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속하여 사건 현장을 재구성하고 이를 재경험하는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 ② 지속적으로 세계를 위협한 공간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 ③ 압도적 공포에 의한 각인으로 인해 심리적 붕괴 현상을 겪는다는 것이다.
- ④ 의식의 연속성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 ⑤ 자신을 더럽혀진 존재로 인식하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8. (가)와 (나)를 바탕으로 <보기>의 판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부당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건물의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강간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하배부 및 골반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영구적 상해를 입었고, 즉시 수술적 처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다.

(중략)

이와 같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그때 그때 여러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범죄의 발생을 막아 이 사회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악성을 교화, 개선시키기 위하여는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기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① 고대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 응보적 형벌의 측면이 드러나 있다.
- ② 현대 사회의 특징처럼 피해자의 회복 또한 중요시 여겨지고 있다.
- ③ 피해자는 영구적 상해로 인한 고통을 느낄 때마다 수치심의 기원을 차단하기 위한 재경험 현상을 겪을 수 있다.
- ④ 중세 시대와 같이 가해자의 엄벌을 통한 사회 질서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 ⑤ 피해자는 과거 범행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사건 당시에 머물러 있는 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형식적인
- ② ㉡ : 심의하고자
- ③ ㉢ : 찾아내는데
- ④ ㉠ : 수의적인
- ⑤ ㉢ : 침조한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독교적 사상에 기반한 서구 전통의 도덕 체계는 인간을 신, 죄책감, 복종, 금욕, 평등주의적 규범에 종속된 수동적 존재로 규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러한 인간 이해를 근본적으로 문제 삼으며, 인간을 극복한 존재이자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형태인 위버멘쉬의 개념을 제시한다. 니체는 이를 통해 기존 서구철학의 틀 속에서 주변화되거나 제약되었던 인간 개념을 부정하고, 인간을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니체가 말하는 위버멘쉬는 완성된 형태로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지속적인 자기 극복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갱신하는 '예술가적 인간'에 해당한다. 위버멘쉬는 고통, 실패, 불안과 같은 부정적 요소들을 포함한 삶 전체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하는 존재이며, 형이상학적 목적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의미를 창조하는 세속적 구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존재이다. 이는 근대 이후 가치 체계가 붕괴한 세계에서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니체의 근본적 응답이라 할 수 있다.

니체는 위버멘쉬에 이르기까지의 내적 변용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세 단계로 설명한다. 첫 번째 단계인 낙타는 주어진 규범과 요구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로, 전통적 도덕과 사회적 명령에 종속된 상태를 상징한다. 두 번째 단계인 사자는 이러한 외적 규율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존재로서, 기존 가치에 대한 투쟁을 수행하지만, 여전히 단순한 반동의 차원을 넘어서지 못한다. 따라서 사자 단계는 규범을 부정할 힘을 확보하였으나,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규범을 창조하지 못하는 미완의 상태에 머문다. 이에 반해 어린아이 단계는 기존 가치의 부정 이후 나타나는 창조의 국면으로, 삶을 놀이로 인식하며 새로운 의미를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능동적 인간이다. 니체가 보기에 이 단계가 곧 위버멘쉬의 형성에 해당한다.

니체는 어린아이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성장이나 의지의 강화가 아닌, 기존 자아의 해체에 가까운 급진적 변용, 즉 '자기 파괴'를 통한 ㉠'자기 극복'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니체에게 있어서 인간의 기존 자아란 기독교적 가치 체계가 생성한 도덕적 내면성, 죄책감, 금욕, 타율적 신념들에 의해 허약한 형태로 ㉡고정된 수동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자아의 구성 요소들을 스스로 해체하는 과정, 즉 '옛 자아의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렇기에 자기 극복이란 파괴와 창조가 동시에 작동하는 존재론적 변용이다.

위버멘쉬의 핵심적 특징은 힘에의 의지(Wille zur Macht)를 긍정하고, 그 연장선에서 영원회귀의 사유를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영원회귀란 자신의 삶이 동일한 방식으로 무한히 반복된다는 사고 실험으로서, 삶 전체를 조건 없이 긍정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개념이다. 니체에 따르면 위버멘쉬는 성장·확장·창조로 나아가려는 힘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긍정하며, 끊임없는 자기 갱신과 자기 형성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회귀 또한 긍정할 수 있다.

1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니체에 따르면 위버멘쉬는 지속적인 자기 파괴를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갱신하는 '예술가적 인간'에 해당한다.
- ② 니체에 따르면 위버멘쉬는 '힘에의 의지'를 따라 기존 가치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는 존재이다.
- ③ 니체에 따르면 '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이상학적 목적론에 종속되어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다.
- ④ 니체에 따르면 서구 전통의 도덕 체계는 인간을 '낙타'와 같은 존재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간과했다는 한계가 있다.
- ⑤ 니체에 따르면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기존 가치에 대한 부정의 태도를 보인다.

11. ㉠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기 파괴에 수반되는 창조가 발생하는 존재론적 변용입과 동시에 '옛 자아의 죽음'을 수용하는 과정이다.
- ② '힘에의 의지'를 긍정하고 받아드리는 사람에게 발생하는 지속적인 진보의 과정이다.
- ③ 기존 서구 전통의 도덕 체계의 절대자를 부정하고 규범의 창조자로서 나아가는 약진의 과정이다.
- ④ 삶 전체를 끊임없이 긍정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사람들 또한 거쳐야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 ⑤ 근대 이후 기독교적 사상에 기반한 서구 전통의 도덕체계가 공고한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응답이다.

12. 윗글의 ‘영원회귀’와 ‘위버멘쉬’의 관계를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위버멘쉬는 자신의 삶이 무한히 반복된다는 가설을 직면했을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승인하는 태도를 취한다.
- ② 영원회귀는 인간이 형이상학적 목적론이나 외부의 구원 없이도 삶의 의미를 긍정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는 시험대 역할을 한다.
- ③ 위버멘쉬가 영원회귀를 긍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고정된 완성태에 머물지 않고 매 순간을 창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 ④ 영원회귀의 사유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과거의 고통과 실패마저도 수용하며 이를 무조건적으로 긍정함을 의미한다.
- ⑤ 영원회귀를 긍정하는 위버멘쉬는 삶의 반복성에서 오는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 극복’을 통해 반복되는 굴레를 끊어내고 단절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한다.

13. <보기>는 니체의 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ㄱ~ㄴ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ㄱ. 나는 언젠가 사람들이 나를 신성시할까 봐 두렵기 그지 없다. (중략) ... 나는 성자가 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어릿광대가 되고 싶다.

ㄴ. 삶의 여로를 걷는 우리들은 여행자다. 가장 비참한 여행자는 누군가를 따라가는 인간이며, 가장 위대한 여행자는 습득한 모든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스스로 목적지를 선택하는 인간이다.

ㄷ. 네 운명을 사랑하라 이것이 지금부터 나의 사랑이 될 것이다! 나는 추한 것과 전쟁을 벌이지 않으려다. 나는 비난하지 않으려다. 나를 비난하는 자도 비난하지 않으려다. (중략) 무엇보다 나는 언젠가 긍정하는 자가 될 것이다!

- ① 절대자에 의존하는 기존 철학을 비판하는 니체의 입장에서 ㄱ은 우상숭배를 거부함과 동시에 삶을 즐기려는 영원회귀의 관점을 전파하기 위하여 작성되었군.
- ② 능동적으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인간을 이상적 존재로 삼는 니체의 입장에서 ㄴ은 기존의 규범에 맞서 싸우라는 가르침을 주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군.
- ③ ‘어린아이’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강조하는 니체의 입장에서 ㄴ은 ‘사자’의 단계에 위치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군.
- ④ 힘에의 의지를 긍정하는 삶을 강조하는 니체의 입장에서 ㄷ은 영원회귀의 사유를 긍정하는 사람이 되라는 가르침을 주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군.
- ⑤ 자신의 존재를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한 니체의 입장에서 ㄷ은 기존 가치의 부정 이후 나타나는 창조의 국면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작성되었군.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질량 분석기인 FT-ICR은 시료를 이온화하여 이온들의 단위 전하당 질량(m/z)을 측정하여 시료의 구성 성분을 확인한다. FT-ICR은 이온들을 균일한 자기장 영역인 셀에 주입한 후 진동시키고 그 원운동 진동수를 측정한다. ㉠이온의 원운동 진동수는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하고 이온의 m/z에 반비례하며 이외의 영향은 잡음에서 ㉡온다.

FT-ICR은 진공 상태에 가까운 셀, 이온의 원운동 궤도를 확대하는 여기 전극, 이온의 원운동 진동수를 측정하는 검출 전극으로 구성된다. 여기 전극은 ㉢이온의 원운동에 따른 유도 전류가 확대되어 측정하기 ㉣편하도록 이온에 전기 에너지를 가한다. 각 이온의 원운동 진동수와 진동수가 같은 교류 전압을 여기 전극에 가하면 이온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m/z가 같은 이온들은 결맞음 상태를 ㉤이루어 한 입자처럼 뭉쳐져 이동한다. 시료에 포함된 다양한 m/z를 갖는 이온들의 원운동 궤도를 동시에 확대하고자 FC-ICR은 시료에 해당하는 범위의 진동수를 지닌 합성 교류 전압을 가한다. m/z가 큰 이온은 같은 속도로 회전할 때 원운동 반지름이 상대적으로 큰데, 관성이 크기에 전기장에 의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속되어 결국 원운동 반지름이 ㉥같아진다.

여기 전극에서 거는 전압은 이온 신호보다 훨씬 강해서 검출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한다. 교류 전압이 차단된 후, 이온들이 확장된 원운동을 계속하다가 결맞음이 깨져 이온 신호가 감소한다. 이때 시료의 이온들을 더 주입하면 ㉦합산된 신호 세기가 커지지만 잡음은 비교적 일정하므로 미세한 성분까지 찾기에 유리하다. 한편 검출 전극은 이온 신호를 시간에 따른 값으로 나타낸 후 m/z에 대한 공식적 함수로 변환해, 해당 m/z를 갖는 이온이 많을수록 꼭짓점의 높이가 높은 그래프를 얻는다. 같은 m/z를 갖는 종류가 다른 이온은 FC-ICR 분석 후 셀 안에 중성 기체와 함께 투입한 후 충돌시켜 구별한다.

여기 전극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이온의 운동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이용되거나 교류 전압을 구현하는 데 쓰인다. 여기 과정에서 이온이 ㉧얻는 운동에너지는 질량(m)에 반비례하고 전하량(z)의 제곱 및 전압이 가해진 시간에 비례한다. 소모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교류 전압의 구현에 쓰이는데 해당 에너지는 전압이 가해진 시간에 비례하고 이온과 무관하다.

14. FT-ICR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온의 원운동 궤도를 일정한 비율로 확대한다.
- ② 이온의 원운동 진동수를 바탕으로 적당한 전압을 가한다.
- ③ 셀 안에 이온이나 기체를 투입하고 이동시키는 장치를 사용한다.
- ④ 이온의 원운동에서 발생하는 이온 신호를 감지하여 이온의 m/z를 파악한다.
- ⑤ m/z가 같은 이온끼리 뭉쳐서 이동하도록 하여 시간에 따른 이온 신호를 측정한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셀의 균일한 자기장만 작동하는 상황에서 측정된다.
- ② ㉡은 m/z 에 따라 모든 이온을 종류별로 분류할 때 사용된다.
- ③ ㉢은 이온의 m/z 마다 특정한 진동수가 포함된 교류 전압을 가해야 증가한다.
- ④ 원운동 궤도가 확대된 후 이온별 ㉢의 합은 ㉣과 같다.
- ⑤ ㉣은 이온의 수에 비례하는 요소를 그와 무관한 요소와 합한 값이다.

16. 밑줄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음 표는 시료 A를 FC-ICR로 분석한 두 실험에서 얻은 m/z 에 대한 그래프의 꼭짓점과 이온의 운동에너지 증가에 사용된 에너지(E)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2에서는 시료를 두 번에 걸쳐 주입했고 둘째 부분이 주입된 전후 전압이 가해진 시간은 모두 실험 1에서 전압이 가해진 시간과 같다. 투입한 이온의 전하량은 모두 같고,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실험	꼭짓점에 해당하는 m/z (상댓값)	E(상댓값)
실험 1	5, 7, 9	3
실험 2	5, 7, 8, 9	5

- ① 검출된 모든 이온의 질량 합은 실험 1이 실험 2의 5/3배보다 작겠군.
- ② 전압을 가하기 전 이온의 원운동 궤도 최솟값은 두 실험에서 서로 같겠군.
- ③ 실험 1에서 검출된 이온 중 실험 2의 둘째 부분으로 주입된 이온이 있겠군.
- ④ m/z 가 8인 이온은 실험 1에서 잡음에 의해 검출되지 않았고 그 수는 m/z 가 9인 이온보다 적겠군.
- ⑤ 실험 2에서 추가로 검출한 이온이 많을수록 실험 2의 첫째 부분으로 주입한 이온의 m/z 합이 작겠군.

17.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도달(到達)한다
- ② ㉡ : 용이(容易)하도록
- ③ ㉢ : 제공(提供)해
- ④ ㉣ : 동화(同化)된다
- ⑤ ㉣ : 수용(受容)하는